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라

사사기 2:6-10, 사도행전 11:19-30

최정웅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최고 영광이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이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지구상에 많은 이념들이 있었다. 이 이념으로 무장해서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정말 혁명을 성공시켜서 세상을 나름대로 변혁시킨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나 단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우국충정으로 시작했지만 갈수록 변질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사실 혁명만 그런 것은 아니다. 보통 사람들도 새해가 되거나, 새 학기가 되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하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 뭔가 바뀌 보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갈수록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간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날마다 퇴보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날마다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는가? 본질적인 그 변화의 방향은,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다. 원래 모습의 회복이다. 특히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영어에 reform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개혁교회를 reformed church라고 한다. 원래의 form, 원래의 모습으로, re,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개혁이라고 한다. 교회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개혁이다. 창립기념일에 우리가, 48년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이 전도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다. 48년 전에, 60세가 넘는 김근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 근처에 사셨다. 이분이 여기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때 서울시에서 정책을 세워서, 서울 전역의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을 거여동과 오금동과 성남에 강제로 이주시켰다. 성남에는 16평씩을, 여기에는 6평씩을 정착하라고 땅으로 주었다. 여기는 그나마 야산이었는데, 성남은 완전히 산이었다. 그래서 성남은 지금도 자전거 타기가 힘든 동네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아예 도시가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을 쓰레기차에 실어서 여기에 그냥 내려놓은 것이다. 김근숙 권사님이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참했던 것이다. ‘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세상의 실패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대문교회 장로님에게 군용 천막을 얻었다. 이 천막을 치고 복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운 날이 1967년 9월 17일이다. 하나님이 김근숙 권사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준 것이다. 우리도 그런 마음, 그 초심으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후대를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1. 시대마다 반복되었던 성경과 교회사들의 흐름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반복되었던 흐름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1)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 곧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밖에 버려져 밟히지 않겠느냐’ 하셨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교회는 무너지고 버린 바가 된다.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빛인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시대가 어떻게 되나? 시대가 전부 암흑에 빠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교회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려서 버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세상이 전부 썩어 버리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본질인 복음과 사명을 놓치고, 교권과 인본주의와 다른 사상에 빠져버릴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 기근 지진 같은 큰 재앙이 밀어닥쳐 왔던 것이다.

(2) 그런데 이 재앙의 때마다,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 랍넛트를 일으켜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회복시키셨다.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늘 말하는 일곱 랍넛트였고 초대교회였다. 교회 역사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자, 전도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었다. 시대마다 교권 때문에 꺾박받

고 누명을 썼지만, 이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교회가 초대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도록 개혁 운동을 생명을 걸고 한 것이다.

(3)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로 온 것이, 시대가 살아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역사가 일어났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이 일어났고, 칼뱅의 운동으로 일어난 청교도들이 영국과 미국을 일으켰다. 무디 운동 이후에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미국이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4) 지금도 우리가 시대를 돌아보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서, 지난날 말씀처럼 분열되고 있고, 이런 때문에 다투다가 세상 법정으로 가면서 세상에서 비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시대에 재앙이 온다. 우리는 재앙을 막아야 할 사명자들이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교회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개혁 운동,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 참사랑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한다.

2. 회복해야 할 개혁의 방향 세 가지

그러면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개혁의 방향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1) 첫 번째 개혁의 방향이다. 우리가 교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영적 개혁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마16:16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것을 믿고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도 개개인이 바로 교회다. 고전3:16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루터가 말했다고 한다. 누가 하나님을 보여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 그랬는데, 루터가,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고, 여기에 안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속에 안 계신다는 것이다.” 정말 그러하다. 그래서 사실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 집이라는 말이다.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이다. 롬1:16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가? 행1:8이다. 이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고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각인시켜야 한다.

(2) 두 번째 회복해야 할 개혁이 있다. 성도 개개인 신앙생활의 개혁이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특별히 이 개인 신앙개혁을 실천하게 되기를 바란다. 대부분 신자들이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무기력, 무응답, 무능력에 빠져 있다. 한 번도 내 삶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인본주의가 나오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 육신 체질, 방관 체질, 육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체질이 굳어져 버렸다. 이것을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평안 가운데서 날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었다. 이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원래 교회의 모습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지금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유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인을 비난한다. 심지어 자기 교회에 대해서 안티인 사람도 있다.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바꾸는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 신앙생활 전부가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충만해서 갔더니 문들이 계속 열리고, 갔더니 제자가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현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이 속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번 주간에, 과연 내가 복음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 빌4:6-7의 말씀대로, 염려를 감사로 뒤집어서, 체질을 개혁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

(3)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 개혁이다. 주님이 현장을 보시면서 탄식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국 세계교회 현장과 문화 현장과 후대 현장을 개혁하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 개혁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현장회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① 복음 대신 다른 것을 하다가 분쟁 속에 있는 교회 개혁의 주역이 되도록,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하겠다는 말이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마가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도록, 특히 안디옥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개혁해야 한다. 땅 끝까지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통해서 복음과 전도를 회복하도록 안디옥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결국 시대의 재앙 흐름을 못 막게 된다. 한국, 세계교회를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에서 건져내어야 한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주간 되기를 바란다. 지난번에 헌신예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야기해주셨다. 금요일에 여러 교회를 가 봤더니 두 가지가 없어졌다고 했다. 하나는,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빠져 있었다고 한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다. 둘째는, 전에는 기도할 때 소리를 지르며 간구하는 것이 그치지 않았고, 예배를 다 마쳐어도 군데군데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배가 끝나기 바쁘게 다 돌아가 버리더라는 것이다. 단 5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우리가 밥을 좀 먹고 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인가 싶다. 우리가 아직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안 된다. 기독교 역사가 130년 밖에 안 됐다. 유럽은 2천 년이 되었다. 소독도 5만 달러씩 된다. 호주 국민소득이 7만 달러나 된다고 한다. 언제 이렇게 발전했나 싶었다. 스위스는 8만 5천 달러다. 그런데 그런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이 더 즐겁게 살고 더 잘 먹고 사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2만 5천 달러 나라가, 벌써 교회도 안 나오고, 와도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는다. 아직도 통일도 안 되어 있고 여러 분야에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렇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 바로 되었는지 생각해야 한다. 전에는 결혼 준비 자금을 전부 교회 밧 값에 현금하는 사람도 있었다. 집을 팔아서 전세로 내려가고, 전세를 내어놓고 사글세로 가면서 현금했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였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 교회 지을 때는 긴장하면서 현금을 했으려나 싶은데, 다 짓고 나서 그런지 긴장하는 사람이 없다. 학자들의 이야기, 2050년 정도 되면 한국의 국민소득이 세계 1위 아니면 2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그때 기독교 인구는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남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는가. 육신의 이익과 쾌락만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피폐해진 나라가 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개인 신앙을 개혁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마지막 때 다 가을 재앙을 우리가 막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한다.

② 세상 문화 흐름을 개혁해야 한다. 지금 점점 흐름이 우상 문화로 가고 있다. 무속, 점술, 우상으로 문화가 되어져 있다. 영적 문제가 전 세계로 경제와 함께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막을 문화선교, 경제선교운동을 당연히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 앞장서서 주역이 되어야 한다. 우리 중직자, 산업인, 전문인들이 바로 이 일에 주인공으로 서게 되어야 한다. 이런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 물질 따라 나가는 보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

③ 마지막 해야 할 것이 우리의 율해 주체다. 후대를 개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각인시키자고 한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도록 램턴트에게 언약을 제대로 심고 뿌리내리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태영아부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다. 한국교회의 6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한다. 태영아부는 상상도 못한다. 그러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태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사역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요즘 아이들이 교회에 안 온다. 스마트폰 만지느라 밖으로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타락하는 시대다. 세상적으로 가면서 망해가는 시대다. 이것을 막으려면, 우리 개인이 교회의 본질을 찾고 개인 신앙생활을 개혁해야 한다. 현장을 개혁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 지교회 운동, 캠프가 필요하다. 그런 일이 점점 없어져 가지 않는가. 어떤 교회 교인이 공무원인데, 호적을 담당하는 분이었던 모양이다. 남자 둘이 오더니 부부로 등록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안 해주면 감옥에 가게 된다. 이 사람이 성경의 양심대로 등록을 안 해줬는데 고발을 당해서 직장을 잃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 미국이 이렇게 되었나 해서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 전도하면 고발당하는 시대가 된다. 보통 어려운 시대가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여,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

야 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말씀은 주로 우리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였다.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우리가 개혁해야 할 자신과 현장과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 응답을 함께 받아야 되겠는데, 특히 중요한 결론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반드시 찾고 확립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감사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라.

특정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돈도 아니고 세상 문화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다. 옛날 고시부에 있을 때 장로님이 시험을 치러 왔다. 목사님이 짓궂게 질문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장로교회니까 장로지요.” 시험에 떨어졌다. (웃음) 어떤 분에게는 “마16:16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다.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홍의표 목사님이 물어보신 것이다. “모르겠는데요.” “그것 모르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서는 세례도 안 주는데요. 세례교인만도 못하면 어떻게 장로가 되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떨어져도 할 말이 없지요?”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더라는 것이다. 그 교회 목사님이 화가 나서 항의했는데, 목사님이 대답했다. “아니, 자기가 떨어뜨리라고 하던데 왜 그래요?” (웃음)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고백하고 찬양한다. 아버지께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늘 물어야 한다. 그것이 참 교회다. 이 축복의 시스템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후대를 부르셨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방관자가 아닌 주역으로 응답받기를 축원한다. 개혁의 응답을 받는 선봉장들이 되어서, 시대의 문제를 막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12의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주간 되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정말 바라볼 분은 하나님뿐이다. 세상 문화가 아니다. 돈이 아니다. 한국 재벌 중에서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 모든 부자들이 싸웠다.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실망한다.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저 파주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어떤 부자가 아들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큰아들에게 좋은 땅을 주었지만, 작은아들이 물려받은 안 좋은 좁은 땅만 하필 도시로 개발되어 버렸다. 큰아들은 땅값이 하나도 안 올랐다. 그래서 아버지 제삿날이 되어서 형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다. 땅값 많이 올랐으니 나 좀 달라고 했더니, 동생이 정색하면서 ‘처음 좋은 땅 받을 때는 나한테 하나도 안 나눠주지 않았냐’ 한 것이다. 형이 화가 나서 옆으로 동생 가족들을 다 쫓겨 버렸다. 괜히 돈만 모으다가 자손 몰살되게 하지 말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웃음)

개혁이라는 단어를 이번 주간에 깊이 생각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는 주간 되기를 바란다. 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 신앙생활에서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내가 사는 가정, 교회 현장, 문화, 후대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없을지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아들 요셉이 가는 곳에는 나라도, 가문도, 가정도, 삶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직장이 변화되기를 바란다. 우리 교우들이 가는 정치, 문화, 학교, 사회 현상이 변화되기를 축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계획이며 뜻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48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셨으며 축복하셨고 도와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못할 때도 참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나 자신이 시작할 때,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될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하게 하옵소서. 당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민족과 세계를 살렸던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 초대교회의 제자들, 일곱 램턴트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재정비하고, 개혁의 깃발을 들고, 현장 변화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복음화에 이바지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개혁총회를 변화시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